

모방에서 상상으로 정의로운 환대(Just Hospitality)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고찰

박한별 (신촌성결교회, 협동목사)

- I. 들어가는 말: 환대가 필요한 시대
- II. 현대 기독교 환대 연구의 주요 흐름과 쟁점
- III. 정의로운 환대: 새로운 환대를 상상하려는 시도와 노력
- IV. 정의로운 환대를 위한 과제
- V. 나가는 말: 다양한 상상을 통한 공생의 길 모색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3.57.09>

• ABSTRACT •

From Imitation to Imagination: A Christian Ethical Understanding of Just Hospitality

Associate Pastor, Park, Hanbyul (Shinchon Evangelical Holiness Church)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imagine hospitality. The reason why we need to imagine hospitality in a different way is because of the limitations of the traditional model of hospitality. In this article, I will explain in detail why hospitality as a moral practice of meeting the needs of stranger without any expectation for reward or return should not be imitated. However, hospitality is still necessary in our society. This article seeks to expound the relational openness, which is an essential characteristic of hospitality, and to find some ways to recover it. In doing so, I will suggest the notion of just hospitality that enables to recognize all participants as partners, not as either benefactors or beneficiaries, to argue that we all are responsible for constructing a just society.

Key words: Hospitality, Power Differentials, Imitation, Imagination, Justice

I. 들어가는 말: 환대가 필요한 시대

우리는 “이주의 시대(The Age of Migration)”에 살고 있다.¹⁾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타자(other)와의 빈번한 만남이다. 한국 사회에서도 이민자, 이주노동자, 난민 등 타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들과의 만남 역시 잦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거부감과 적대감은 사라지거나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타자에 대한 혐오, 차별, 배제, 억압, 폭력 등의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 조르조 아감벤(Giorgio Agamben)의 표현처럼 이들은 “벌거 벗은 생명(bare life)”과 같다.²⁾

오래 전부터 보편적 인권, 자유, 그리고 평등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는 선진 민주 국가들에서도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공개적인 비난은 멈추지 않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혐오와 폭력의 사례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³⁾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조차 이민자들은 자국민의 일자리를 빼앗고 국가의 재정 부담을 늘리며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악당(villain)”으로 불린다.⁴⁾ 한국 사회 역시 다문화주의를 정부의 정책 의제로 삼은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에 대한 혐오, 차별, 폭력 등의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⁵⁾

1) Stephen Castles and Mark J. Miller,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2nd ed. (London: MacMillan Press, 1998)

2) Giorgio Agamben, *Homo Sacer: Sovereign Power and Bare Life*, 1st edition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8)

3) 최진우, “환대의 윤리와 평화,” 최진우 편저, 『다양성의 시대, 환대를 말하다』 (서울: 박영사, 2018), 5-8.

4) HyeRan Kim-Cragg, “A Postcolonial Portrait of Migrants as Vulnerable and Resistant,” *Practical Matters* 11 (Spring 2018): 6.

5) 조용훈, “다문화 사회에서 기독교의 윤리적 과제,” 『기독교사회윤리』 22(2011), 308-314; 한건수, “한국사회의 다문화주의 혐오증과 실패론: 어떤 다문화주의인가?” 『다문화와 인간』 제1권 제1호 (2012년 6월), 117-125; 이상철, 김남석, “난민 시대 환대의

이러한 시대에 환대(hospitality)는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환대는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 이와 같은 질문들을 출발점으로 삼는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다. 먼저, 최근까지 진행된 환대 연구들을 간략히 살펴봄에 주요 흐름과 쟁점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최근 환대 연구는 광범위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 신학 영역에서의 연구들을 주로 다루고자 한다.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현대 기독교 환대 연구자들의 관심사가 이동하고 있음을 밝힌 후 본 연구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환대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손님인가(who is the host and who is the guest)”라는 비판적 질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이다.⁶⁾ 즉, ‘무엇(what)’의 질문은 반드시 ‘누가(who)’의 질문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비판적 물음은 기독교 환대 전통을 비판적으로 돌아보고 새로운 상상을 통해 정의로운 환대의 개념을 도출하는데 꼭 필요하다.

II. 현대 기독교 환대 연구의 주요 흐름과 쟁점

환대는 오랜 역사를 가진 개념이다. 역사적으로 환대는 잠시 머물 공간, 허기를 채울만한 음식, 또는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등 타인의 현실적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행위로 이해되어 왔다.⁷⁾ 그러나, 정체를 알 수 없

기독교 윤리, 『신학사상』189(2020), 283 - 289; 김성호, “상호문화주의를 바탕으로 한 기독교 다문화사회복지의 과제: 평등을 지향하는 공정한 환대의 실천,” 『기독교사회윤리』 36(2016), 40-43.

6) Namssoon Kang, *Cosmopolitan Theology: Reconstituting Planetary Hospitality, Neighbor-Love, and Solidarity in an Uneven World* (St. Louis, MO: Chalice Press, 2013), 151.

7) Christine D. Pohl, *Making Room: Recovering Hospitality as a Christian Tradition*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9), 4.

는 사람에게 자신의 집을 개방하여 함께 식사하거나 잠시 머물 것을 허락하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니다.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프랑스 철학자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가 환대를 적대(hostility)와 분리할 수 없었던 이유도 위험을 동반하는 환대의 본질적 특성 때문이다.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대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으로 여겨졌다. 기독교 환대는 머물 곳과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을 존엄과 가치를 지닌 존재이자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할 이웃으로 삼는 행위였다. 기독교인에게 환대는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이자 반드시 수행해야 할 책임이었다.

안타깝게도, 환대는 본래의 도덕성을 잃어버렸다.⁹⁾ 헨리 나우웬(Henri J. M. Nouwen)이 환대의 도덕성 상실을 지적하는 대표적인 학자이다. 그는 환대가 본래 도덕적 범주에 속하는 개념이었으나 현대 사회에 이르러 친절함을 일컫는 일상 용어가 되었다고 지적한다.¹⁰⁾ 마르레에서 세명의 나그네에게 휴식과 음식을 제공한 아브라함의 환대, 얼마 남지 않은 재료로 엘리야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 베푼 사르밧의 환대,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주린 배를 채우신 예수님의 환대 등 성서에 기록된 환대의 여러 모델들을 제시하며 나우웬은 환대가 본래 낯선 사람을 친절하

8) 본질적으로 적대와 분리될 수 없는 환대의 특성을 잘 설명하기 위해 자크 데리다는 “적환대(hostipitality)”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다. 다음을 참조하라. Jacques Derrida, *On Cosmopolitanism and Forgiveness*, trans., Mark Dooley and Michael Hughes (New York: Routledge, 2001), 17, and Jacques Derrida, “Hospitality,” in *Acts of Religion*, ed., Gil Anidjar (New York: Routledge, 2002), 358-420.

9) 환대가 도덕성을 잃었다고 지적하는 학자들은 다음과 같다. Henri J. M. Nouwen, *Reaching Out: The Three Movements of the Spiritual Life* (New York: Doubleday, 1975); Parker J. A. Palmer, *Company of Strangers: Christians and the Renewal of America's Public Life* (New York: Crossroad, 1986); Richard Lucien, *Living the Hospitality of God* (New York: Paulist, 2000); Elizabeth Newman, *Untamed Hospitality: Welcoming God and Other Strangers* (Grand Rapids, MI: Brazos Press, 2007), and Amy G. Oden, *God's Welcome: Hospitality for a Gospel-Hungry World* (Cleveland, OH: The Pilgrim Press, 2008)

10) Nouwen, *Reaching Out*, 66.

게 맞이하여 후하게 대접하는 행위 이상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¹¹⁾

엘리자베스 뉴만(Elizabeth Newman)은 오늘날의 환대가 자본주의, 개인주의, 그리고 소비주의의 조류에 휩쓸려 본래의 도덕성을 상실했다고 진단한다.¹²⁾ 먼저, 뉴만은 환대가 아늑한 공간, 맛있는 음식, 또는 즐거운 대화 등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감성적 언어로 축소되었다고 본다. 이같은 언어는 그저 “무미건조한 친절(bland niceness)”을 전달할 뿐이지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¹³⁾ 또한, 환대는 개인화되었다. 뉴만은 환대가 정치, 사회, 경제 영역으로부터 분리되어 개인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음을 꼬집는다. 마지막으로, 뉴만은 환대가 상업화되었다고 지적한다. 이와 같은 지적은 환대가 본래 타인에게 존중, 공감, 연민의 태도를 보이는 도덕적 행위였으나 오늘날에는 고객을 만족시키는 서비스로 환원되었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다. 요약하자면, 뉴만은 축소, 개인화, 상업화의 과정을 “왜곡(distortion)”으로 명명하며 환대의 도덕성 상실을 비판한다.¹⁴⁾

이와 같은 비판은 역설적 결과에 이른다. 즉, 여전히 환대가 현대 사회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환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현대 신학자들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사람은 크리스틴 폴(Christine D. Pohl)이다. 우선, 폴은 환대가 기독교 고유의 개념이 아님을 밝힌다. 실제로,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시민들도 환대를 실천했었다. 당시 사회적 특권 계층이었던 시민들은 선한 의지(good will)나 형제애(brotherhood)에서 비롯된 환대를 베풀었다. 그러나 폴은 이들의 환대는 도덕성에 근거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환대를 베푸는 시민들이 자신의 너그러운 행위에 대한 보답으로

11) 위의 책, 66-67.

12) Newman, *Untamed Hospitality*, 24.

13) 위의 책.

14) 위의 책, 32.

감사의 인사와 존경의 태도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환대는 수여자(benefactor)와 수혜자(beneficiary) 간의 “상호적 의무(reciprocal obligations)”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었다.¹⁵⁾

이와 같은 환대의 개념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문학 작품에도 등장한다. 고전 문학을 연구하는 엘레나 이사예프(Elena Isayev)는 고대 그리스 작가인 호메로스(Homer)가 묘사한 환대의 모습, 즉 시민들이 낯선 사람에게 안식처와 음식을 제공하는 모습을 소개하며 당시 환대는 곧 사회의 성숙함을 판단하는 척도였다고 주장한다.¹⁶⁾ 마찬가지로 로마 시대에도 환대가 존재했다. 라디슬라우스 볼차지(Ladislau J. Bolchazy)는 고대 로마의 문학 작품과 키케로(Cicero)나 세네카(Seneca)와 같은 철학자들의 저작 속에서 또 다른 환대의 개념을 발견한다.¹⁷⁾ 그에 따르면, 고대 로마 사회에서 환대는 로마 제국의 시민이 자신에게 부과된 성스러운 의무(sacred duty), 즉 모든 인간을 사랑해야 하는 의무를 수행하는 방법이었다.¹⁸⁾ 하지만, 로마 시민의 환대 역시 시민의 특권 의식으로부터 나온 행위로서 상대방으로부터 보답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그리스 시민의 환대 행위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그리스와 로마의 환대와는 달리 초기 기독교 환대는 조건 없이 베푸는 행위였다. 환대는 기독교인들의 너그름에서 나온 행위로서 마치 아무런 보상과 보답 없이 “선물(gift)”을 주는 일과 같았다.¹⁹⁾ 스테픈 웹

15) Ilsup Ahn, “Economy of ‘invisible debt’ and ethics of ‘radical Hospitality’: Toward a paradigm change of hospitality from ‘gift’ to ‘forgiveness,’” *Journal of Religious Ethics* 38/2(2010): 244.

16) Elena Isayev, “Hospitality: A Timeless Measure of Who We Are?” *Migration and Society: Advances in Research* 1 (2018), 7-9.

17) Ladislau J. Bolchazy, *Hospitality in Early Rome: Livy’s Concept of Its Humanizing Force* (Chicago, IL: Ares Publishers, 1977), 1.

18) 위의 책, 1-26.

19) Pohl, *Making Room*, 78.

(Stephen H. Webb)은 이와 같은 특징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기독교 환대는 상호 교환(reciprocal exchange)의 논리를 따르지 않는 대신 과잉의 윤리(ethic of excess)를 추구한다. “더 많이 말하고, 더 많은 일을 행하며, 더 많은 것을 베풀고자 하는 불가능성”을 이루고자 하기 때문이다.²⁰⁾

폴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환대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는 너그러울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우선, 폴은 마 25:34 - 26의 기록을 통해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주인(host)이자 손님(guest)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즉, 예수는 자기 자신을 환대의 주체이자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다. 폴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따라 자기 자신을 “이중 정체성(dual identity)”을 가진 존재로 인식했기 때문에 손님 의 처지를 공감하고 겸손한 태도로 환대를 베풀수 있었다고 주장한다.²¹⁾ 폴이 주목한 또 다른 성서의 기록은 눅 14:12 - 14이다. 이는 기독교 환대의 대상과 관련이 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예수는 환대를 부모, 형제, 친구와 같이 친밀한 사람에게만 베풀지 말라고 가르친다. 오히려, 예수께서는 나와 가장 동떨어진 사람, 즉 “그들 중 가장 작은 자(the least of these)”에게 환대를 베풀라고 가르치신다.²²⁾ 폴은 이와 같은 예수의 가르침 때문에 인종, 성별, 계급, 장애 등의 이유로 사회의 중심부로부터 밀려난 사람들이 기독교 환대의 주요 대상이 되어 왔다고 주장한다.²³⁾

에이미 오든(Amy G. Oden)은 기독교 환대의 특징을 너그러움에 국한

20) Stephen H. Webb, *The Gifting God: A Trinitarian Ethics of Exces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11.

21) Christine D. Pohl, “Hospitality from the Edge: The Significance of Marginality in the Practice of Welcome,” *The Annual of the Society of Christian Ethics* 15(1995), 125.

22) Pohl, *Making Room*, 22.

23) 위의 책 78.

시키지 않기 위해 초기 기독교인들의 환대 행위를 자세히 살펴볼 것을 제안한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 받았던 타자로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누구보다 환대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고통 당했던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환대는 단지 먹을 것, 입을 것, 또는 쉴 곳을 마련해 주는 일에 그치지 않았다. 오히려 이들의 환대는 긴박한 상황에 놓인 사람을 돕거나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을 보호하는 일까지 포함하는 행위였다.²⁴⁾ 이와 같은 환대는 사회적 권위와 특권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게 베풀었던 당시 로마 시민들의 환대와는 확연히 구분되었다. 기독교인들의 환대가 로마 사회에서도 인정받을 만한 “도덕의 전형(example of morality)”이었다는 기록이 이를 뒷받침한다.²⁵⁾ “자신이 나그네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존 크리소스톰(John Chrysostom)의 말은 자기를 희생할 각오로 환대를 베풀었던 초기 기독교인들을 본받자는 일종의 제안이었다.²⁶⁾

기독교 환대의 특징을 성서적, 그리고 역사적으로 찾고자 한 폴과 오든의 노력을 통해 우리는 환대가 본래 지닌 도덕적 특성을 되찾을 때 비로소 오늘날 우리 사회에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환대의 도덕성을 회복시키려는 노력이 전통적인 환대 모델, 즉 어떠한 보상과 보답을 요구하지 않는 너그러운 행위로서의 환대를 그대로 복원하는데 그쳐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전통적 환대가 수여자와 수혜자 간의 힘의 차이(power differential) 또는 힘의 불균형(power disparity)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전제 때문에 전통적 환대는 그저

24) Amy G. Oden, *And You Welcomed Me: A Sourcebook on Hospitality in Early Christianity* (Nashville, TN: Abingdon Press, 2001), 39.

25) 위의 책, 38-39.

26) John Chrysostom, “Homily XXIV on Hebrews xi. 13-16,” in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of the Christian Church 1-XIV*, trans. G. T. Stupart, 473-477 (New York: The Christian Literature Company, 1890), 473.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우월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베푸는 구호와 자선의 행위에 그칠 수 밖에 없다. 오늘날의 불평등한 사회 구조 안에서 수여자의 너그러움에 기댄 전통적 환대는 이민자, 이주노동자, 난민 등 사회적 약자들이 느끼는 근본적인 필요를 채워주지 못한다. 환대가 이민자, 이주노동자, 난민 등 오늘날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을 인류 보편의 가치를 지닌 사람으로 존중하고 동등한 권리를 가진 사회적 구성원임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환대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우월한 위치를 점한 사람들의 힘을 과시하고 특권을 옹호하는데 오용(misuse) 또는 남용(abuse)되고 있다.

안일섬은 전통적 환대의 모델을 모방할 때 맞닥뜨릴 수 있는 위험을 예고한다. 그에 따르면 불평등이 구조화된 현대 사회 안에서 더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를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여기고 수여자의 지위를 차지한다. 이들이 안식처, 음식, 안전과 보호 등을 너그럽게 베푸는 행위는 언뜻 보면 조건 없이 선물을 주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이민자, 이주노동자, 또는 난민에게 “보이지 않는 빚(invisible debt)”을 지게 만든다.²⁷⁾ 즉, 환대가 타자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안일섬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만일 환대의 개념이 선물의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형성된다면, 이민자, 이주자, 또는 난민의 미래 운명은 환대를 베푸는 시민들의 선하지만 변덕스러운 의지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하지만, 이런 시민들에게는 낮은 사람들에게 환대를 베풀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전혀 없다. 선물을 베푸는 것은 늘 필요조건이 아니다. 환대가 선물로 제공될 때, 이것은 되갚아야 할 빚이 된다.²⁸⁾

27) Ahn, “Economy of ‘invisible debt’ and ethics of ‘radical Hospitality,’” 247-251.

28) Ibid., 252-253. 안일섬은 너그러움을 바탕으로 하는 전통적 환대의 모델을 “선물의 패러다임(paradigm of gift)”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안일섬은 기존의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는 한 환대는 “채권자/채무자의 관계(the creditor/debtor relationship)”를 끊임 없이 만들어낼 것이라고 전망한다.²⁹⁾ 이러한 전망은 환대가 현대 사회의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불안감을 불러 일으킨다. 수혜자를 채무자(debtor)로 만드는 행위는 이방인에 대한 혐오, 차별, 배제, 억압, 폭력에 정당성을 부여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미구엘 델 라 토레(Miguel A. De La Torre)는 우월한 사회적 지위와 힘에 의한 환대를 통해서도 현대 사회가 당면한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한다. 전통적 환대는 너그름과 같은 수여자의 덕(virtue)을 부각시키기만 할 뿐, 시민과 이민자 간의 힘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³⁰⁾ 힘의 불균형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너그럽게 환대를 베푼다는 식으로 주장한다면, 결국 시민과 이민자 간의 관계를 분리, 경직, 그리고 수직 서열화하게 된다. 이와 같이 전통적 환대를 모방하거나 복원하려는 시도와 노력으로는 오늘날의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비판적 전망이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환대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없는 것인가?

29) 안일섬은 수여자와 수혜자의 관계가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로 변질시키는 환대가 “부정적인 도덕 경제(negative moral economy)”를 형성한다고 비판한다. 이와 같은 이해는 프리드리히 니체의 도덕성 개념으로부터 온 것이다. 다음을 참조하라. Friedrich Nietzsche, *On the Genealogy of Morals*, trans., Walter Kaufmann and R. J. Hollingdale (New York: Vintage Books, 1989)

30) 미구엘 델 라 토레(Miguel De La Torre)는 제국주의의 지배 논리를 강화하는 환대는 이민자를 둘러싼 사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의 환대 비판을 위해 다음을 참조하라. <http://drmigueldelatorre.com/2010/moving-beyond-hospitality/> 2023년 4월 1일 접속.

III. 정의로운 환대: 새로운 환대를 상상하려는 시도와 노력

다행스럽게도, 환대에 대한 기대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낭만화(romanticization), 비정치화(apoliticization), 탈정치화(depolicitization) 되어 맹목적인 자선(blind-charity)의 행위로 전락한 기독교 환대를 새롭게 상상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시도와 노력들 때문이다. 환대에 대한 새로운 상상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필요로 한다. “누가 주인이고 누가 손님인가?”³¹⁾ 이 질문은 전통적 환대 담론이 소홀히 여겼던 수여자와 수혜자 사이의 힘의 차이 문제를 제기한다. 상상은 결코 현실과 괴리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은 냉철한 현실 분석을 통해 환대를 새롭게 상상하고자 노력해왔다.³²⁾ 이와 같은 노력을 “불가능한 가능성(impossible possibility)”을 추구하는 일이라 믿는 학자들에 의해서 정의로운 환대(just hospitality) 담론이 형성되었다.³³⁾

31) 전통적 환대에 전제된 힘의 차이의 문제는 강남순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후, 다음과 같은 학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다루어졌다. Kang, *Cosmopolitan Theology*, 151; Thomas E. Reynolds, “Beyond Hospitality?” in *Religion and Migration: Negotiating Hospitality, Agency, and Vulnerability*, ed. Andrea Bieler, Isolde Karle, HyeRan Kim-Cragg, and Ilona Nord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2019), 110; Nell Becker Sweeden, *Church on the Way: Hospitality and Migration* (Eugene, OR: Pickwick Publications, 2015), 44; Carmen M. Nanko-Fernandez, *Theologizing in EspanGLISH: Context, Community, and Ministry* (Maryknoll, NY: Orbis Books, 2010), 119.

32) Kwok Pui-lan, *Postcolonial Imagination and Feminist Theology*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5), 2-3.

33) 환대를 새롭게 이해하고 상상하는 일은 “불가능한 가능성(impossible possibility)”이라고 말한 사람은 자크 데리다와 레티 러셀이다. Jacques Derrida, *Adieu to Emmanuel Levinas*, trans., Pascale-Anne Brault and Michael Naas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9); Letty M. Russell, *Just Hospitality: God's Welcome in a World of Difference*, ed. J. Shannon Clarkson and Kate M. Ott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9), 115.

이 담론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사람은 레티 러셀(Letty M. Russell)이다. 러셀은 전통적 환대에 대한 비판을 시작으로 자신의 상상력을 발휘해 나간다. 먼저, 러셀은 선한 의지에서 도출되는 전통적 환대가 낮은 사람이 가진 개별성(particularities)을 말살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³⁴⁾ 이 지적은 “일방적인 힘의 흐름(unidirectional lines of power flow)”을 생성하는 환대 때문에 이민자, 이주 노동자, 난민 등의 사람들이 도덕적 채무자로 전락한다는 안일섭의 지적과 일맥상통한다.³⁵⁾ “누가 소외되었는가?” 또한 “어떤 사람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는가?”라는 비판적 질문을 통해 환대를 새롭게 상상하기 위해서는 “환대의 해석학(hermeneutic of hospitality)”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³⁶⁾ 즉, 러셀은 환대의 대상으로만 간주되던 사람들을 주체와 동등하다고 보는 인식적 정의(cognitive justice)로부터 새로운 환대의 상상이 시작될 수 있다고 본다.

전통적 환대는 주체와 타자를 철저하게 구분한다. 이러한 구분은 전통적 환대가 ‘수여자/수혜자’와 같은 이분법적 언어를 만들어 내는 “타자의 해석학(hermeneutic of the other)”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다. 이분법적 언어 사용과 인식의 방법은 “가진 자(those who have)”와 “궁핍한 자(those who need)”로 양분화된 현대 사회에서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킨다. 러셀은 이러한 방법으로는 “정의와 치유를 위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없다고 평가한다.³⁷⁾ 그렇다면, 러셀이 제시하는 대안은 무

34) Russell, *Just Hospitality*, 31.

35) Anthony Gittens, “Beyond Hospitality?” *The Missionary Status and Role Revisited*, *International Review of Missions* 83/330(1994), 399. 기틀스가 설명한 힘의 논리는 기독교 환대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학자들에게 자주 인용되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라. Sweeden, *Church on the Way*, 17-45.

36) Russell, *Just Hospitality*, 14.

37) 위의 책, 2, 24. 러셀은 자신이 지향하는 환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환대는 차이를 넘어 위기에 봉착한 우리 세계를 치유하고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행동이다.”

엇인가? 러셀은 환대를 새롭게 상상하기 위해서 우선 “환대의 해석학(hermeneutic of hospitality)”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³⁸⁾ 그는 자신이 해석학적 전환을 시도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나는 나 자신의 사고를 타자의 해석학에서 환대의 해석학으로 옮겨 갔는데, 여성주의 신학자인 내가 타자와 거리를 두는 이원적 언어를 더 이상 사용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 대신에 나는 기독교 전통 속에서 하나님의 환대 안에서(서로의) 차이가 중요함을 확인하고 모든 사람들과 창조물들을 환영하고자 한다.³⁹⁾

이와 같은 전환은 기독교 환대의 전통 안에 깊이 뿌리 내린 인식의 체계를 깨뜨리려는 노력이다. 이는 또한 ‘타자’라는 포괄적 범주(universal category) 안에 묶어 두던 사람들을 새롭게 이해하려는 사고의 변혁이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러셀은 정의(justice)를 “올바른 관계(right relationship)” 형성을 목적으로 삼는 개념으로 이해한다.⁴⁰⁾ 정의에 대한 자신의 이해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sedakah*’로부터 도출되었다고 밝힌다. 당연히 이것은 개인의 올바른 행동을 위한 준칙이나 추상적인 원리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 또는 나와 타인 간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의미한다.⁴¹⁾ 결국, 러셀은 “관계적 개념(relational concept)”으로 설명 가능한 자신의 정의 개념을 환대에 덧입힌다.⁴²⁾

그러나, 환대를 새롭게 상상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와 노력이 러셀의

38) 위의 책, 24.

39) 의 책.

40) 위의 책, 117.

41) Letty M. Russell, *Church in the Round: Feminist Interpretation of the Church*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3), 117.

42) 위의 책 112-150.

정의 개념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주체와 대상을 구분 짓는 이분법적 논리에 도전하지 않고도 환대를 새롭게 상상하고자 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의를 공정(fairness)의 개념으로 이해했다. 존 롤즈(John Rawls)의 정의 개념을 덧입혀 러셀이 상상한 “정의로운 환대”를 “공정한 환대”로 번역한 것이 바로 그 예이다.⁴³⁾ 공정으로 이해되는 롤즈의 정의 개념은 “무지의 장막(the veil of ignorance)”이라는 이론적 전제에 의해 뒷받침된다.⁴⁴⁾ 이 전제는 실재하는 불평등한 사회 구조, 즉 부당한 현실을 보이지 않게 베일 뒤에 숨겨둔 채 정의의 개념을 논하게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은 현실을 기반으로 형성된 개념이 아니라 추상적인 원리일 뿐이다. 의심의 여지 없이 공정은 올바른 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삼는 러셀의 정의 개념과는 전혀 다르다.

정치 철학자 아이리스 영(Iris M. Young)은 롤즈의 정의 개념은 부당한 사회 구조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은 논의의 산물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한다. 이같은 개념은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유지시키고, 부당한 사회 권력을 옹호하는 또 다른 “지배의 도구(tool of domination)”가 된다.⁴⁵⁾ 작고한 기독교 윤리학자 아다 마리아 이사시-디아즈(Ada Maria Isasi-Diaz) 역시 영과 같은 이유에서 롤즈의 정의 개념을 비판했다. 특히, 이 개념이 차별, 배제, 폭력에 관한 역사와 실재를 부인한 결과물임을 지적하며, 결국 사회적 약자 계층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⁴⁶⁾

43) 러셀의 책은 2012년에 그녀의 제자였던 여금현에 의해 한국어로 번역되었다. 레티 M. 러셀, 『공정한 환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사는 세계에서 낯선 이들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환영』, 최는 클락슨, 케이트 M. 오프 편집, 여금현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44) John Rawls, *Justice as Fairness: A Restatement*, ed. Erin Kelly (Cambridge, MA: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01), 43.

45) Audre Lorde, *Sister Outsider: Essays and Speeches* (Trumansburg, NY: Crossing Press, 1984), 115.

공정의 개념 이외에도 올바른 관계 형성을 지향하지 않는 정의의 개념이 새롭게 환대를 상상하는 일에 적용된다면 결과는 어떨까? 결과는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 즉, 타자는 재생산된다는 뜻이다. 게다가, 타자에 대한 인식 역시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환대의 주체와의 관계는 온전할 수 없다. 주체와 타자, 또는 시민과 이방인 간의 올바른 관계 형성을 도모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둘 간의 힘의 차이를 존속 또는 강화시키는 환대, 즉 “결함 있는 환대(flawed hospitality)”가 무엇인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⁴⁷⁾ 이를 통해 현대 사회 안에서 수행되고 있는 다양한 환대의 모델들이 이민자, 이주노동자, 또는 난민을 새롭게 인식하고 그들과의 올바른 관계 형성을 도모하는 정의로운 행위인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관용(tolerance)이다. 루크 브레더튼(Luke Bretherton)에 의하면 “자유주의적 인간(liberal personhood)”의 기준에 부합하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시민들이 관용의 주체이다.⁴⁸⁾ 한편, 자유주의적 인간으로 분류할 수 없는 이민자, 이주노동자, 난민 등이 관용의 대상이 된다. 시민들은 관용을 통해 자신들이 세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존중의 제스처만 보일 뿐, 그들에게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저, 이들의 타자성을 강화시킬 뿐이다. 이와 같은 특징 때문에

46) Ada Maria Isasi-Diaz, “John Rawls on Justice,” in *Beyond the Pale: Reading Ethics from the Margins*, ed., Stacey M. Floyd-Thomas and Miguel A. De La Torre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1), 145-152. 경청과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공격 이성의 개념을 롤즈로부터 도출하는 연구는 공정으로서의 정의 개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본고의 방향과는 반대이지만 보다 나은 롤즈의 정의 개념 이해를 위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박선영, 목광수, 김승환, 성신형, 『기독교사회윤리』 48(2020), 74-78.

47) Reynolds, “Beyond Hospitality?” 115-116.

48) Luke Bretherton, “Tolerance, Education, and Hospitality: A Theological Proposal,” *Studies in Christian Ethics* 17/1(2004), 86.

미국의 철학자 모리스 해밍턴(Maurice Hamington)은 관용을 “딱딱한 의례(rigid ritual)”에 비유한다.⁴⁹⁾ 데이비드 홀렌바흐(David Hollenbach) 역시 관용이 사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달래는 용도로 사용될 뿐이라고 비판한다.⁵⁰⁾

두번째는 온정주의(paternalism)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민의 선한 의지에서 비롯된 환대는 조건 없이 이민자, 이주노동자, 난민 등을 새로운 사회에 진입 또는 정착하도록 돕는다. 물론, 온정을 베푸는 시민들 덕분에 이방인들은 최소한의 생존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 기회가 꾸준히 주어질 것이라고 확인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온정은 가변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시민들은 최소한의 기회만 제공할 뿐이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안정과 번영을 이방인들에게 결코 허락하지 않는다. 즉, 시민들은 이방인들을 ‘우리’라는 범주 안에 결코 들여놓을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⁵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은 최소한의 안전과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 시민들이 설정해 놓은 규범을 준수해야만 하고 때로는 불합리한 처사와 이유 없는 비난도 감수해야만 한다. 이와 같이, 온정주의적 환대는 시민과 이방인 간의 좁혀질 수 없는 거리를 확인시켜 준다.

마지막은 포용(inclusion)이다. 포용이 여기에 속한다는 사실이 의아할 수 있다. 왜냐하면 포용은 종종 환대의 최종 목적지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영국의 사회학자 사라 아메드(Sara Ahmed)는 포용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환대의 모델이 아님을 알려준다. 아메드는 포용을 사회의 중심부와 주변부에 속한 사람들을 구분 짓는 정치적 장치로

49) Maurice Hamington, “Toward a Theory of Feminist Hospitality,” *Feminist Formations* 22/1(Spring 2010), 26.

50) David Hollenbach, *Common Good and Christian Eth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32-42.

51) Reynolds, “Beyond Hospitality?,” 115.

이해한다. 즉, 사회 기득권층이 베푸는 포용은 “통제의 기술(technology of governance)”로서 이민자, 이주노동자, 또는 난민들에게 사회의 지배적인 규범을 따를 것을 종용한다고 주장한다.⁵²⁾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회 기득권층은 포용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도덕적 우월성을 과시한다. 지배 규범을 철저히 따르더라도 대부분의 이민자, 이주노동자, 그리고 난민들은 사회 중심부에 속하지 못한다. 이와 같이 포용은 은밀하게 “배제의 정치(politics of exclusion)”를 뒷받침한다.⁵³⁾

IV. 정의로운 환대를 위한 과제

환대를 올바른 관계 형성을 지향하는 정의로운 개념으로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환대 담론의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재고해야 한다. 환대의 주체와 대상을 분리하는 이분법적 인식 체계와 관련이 있는 이러한 조건들을 비판적으로 살펴보지 않고서는 정의로운 환대의 필수 조건인 인식의 평등을 이룰 방안을 찾기 어렵다. 두 가지 전제 조건은 다음과 같다.

먼저, 환대의 주체는 반드시 도덕적으로 투명한(transparent) 존재라는 전제이다. “수여자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 선물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전제 때문에 전통적 환대 담론 안에서 수여자가 환대를 베풀지 않을 가능성, 즉 도덕적 타락의 가능성은 제기되지 않는다.⁵⁴⁾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전제가 곧 환대를 관용, 온정주의, 포용 등의 결합 있는 형태로 변질시킨다. 이같은 전제에 비판적으로 접근할 때 수여자의 너그러움을 강조하는 환대가 낳는 오용과 남용의 원인을 찾

52) Sara Ahmed, *On Being Included: Racism and Diversity in Institutional Life*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2012), 163.

53) 위의 책, 163-171.

54) Reynolds, “Beyond Hospitality?,” 115.

을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전제는 수여자의 도덕적 우월성(superiority)에 관한 것이다. 토마스 레이놀즈(Thomas E. Reynolds)는 전통적인 환대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향하는 서구 사회의 인간 이해를 바탕으로 형성, 그리고 발전되었다고 주장한다. 쉽게 말하면, 전통적 환대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주체(independent and autonomous subject)”만을 행위의 주체로 삼아 왔다.⁵⁵⁾ 이러한 전제 때문에 오랫동안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인 힘을 소유한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이 환대의 주체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이들이 제공하는 환대는 수혜자의 존재론적 변화를 방해한다. 다시 말하면, 수혜자로서의 지위를 영속화시켜 또 다른 환대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것이다.

정의로운 환대의 상상은 ‘누구(who)’ 질문을 필요로 한다. 이 질문은 환대의 주체와 객체를 구분 짓는 이분법적 인식 체계에 대한 저항이다. 이 질문의 답은 다운 노트웨르(Dawn M. Nothwehr)의 “상호성(mutuality)”의 규범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⁵⁶⁾ 이같은 규범은 힘(power)에 대한 노트웨르의 새로운 이해를 통해 형성되었다. 오랫동안 힘은 지배의 개념(power-over)으로 이해되어 왔지만 노트웨르는 힘을 공유의 개념(power-with)으로 이해한다.⁵⁷⁾ 이러한 방식의 이해는 ‘모든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서로 의지하고 있다’는 노트웨르의 인간 실존 방식의 발견에서 비롯되었다. 상호연결(interconnection)과 상호의존(interdependence)의 실존적 이해를 바탕으로 구성된 상호성의

55) 위의 글, 115.

56) Dawn M. Nothwehr, *Mutuality: A Formal Norm for Christian Social Ethics* (Eugene, OR: Wipf and Stock Publishers, 1998), 233.

57) Christine Firer Hinze, “Power in Christian Ethics: Resources and Frontiers for Scholarly Exploration,” *The Annual of the Society of Christian Ethics* 12(1992), 277-290.

규범에 따라 환대를 새롭게 상상할 때 주체와 객체를 나누던 경계는 흐려진다. 서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의지하고 있다는 인식 때문에 주체와 객체의 관계는 더 이상 ‘그들/우리(them and us)’로 대변되는 “지배자/피지배자(colonizer/the colonized),”⁵⁸⁾ “채권자/채무자(creditor/the debtor),”⁵⁹⁾ 또는 “수여자/수혜자(benefactor/beneficiary)”⁶⁰⁾의 관계로 축소 또는 환원되지 않는다. 대신에, “공동의 주인 의식(co-hostship)”과 “공동의 손님 의식(co-guestship)”을 지닌 “동등한 주체(equal subjects)”간의 협력적 관계(partnership)로 재설정된다.⁶¹⁾

상호성의 규범에 의해 새롭게 상상된 환대, 즉 상호적 환대(mutual hospitality)는 “관계의 개방성(relational openness)”의 특성을 지닌다.⁶²⁾ 관계의 개방성은 곧 손님과 주인 간의 분리, 경직, 수직 서열화된 관계의 변화 가능성을 보증한다. 손님과 주인의 관계가 유연해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와 같은 개방성은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된다. 풀은 이를 손님이 주인이 되는 “중대한 변화(an important transformation)”의 발생 가능성으로 설명한다.⁶³⁾ 이 가능성은 사회적 힘이 없는 사람들을 손님 또는 수혜자 이외의 용어로 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주인과 손님의 위치에 놓인 사람들 모두 특정한 시공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통된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는 러셀은 이와 같은 공통의 경험 때문에 손님과 주인의 관계가 변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⁶⁴⁾

58) Russell, *Just Hospitality*, 25.

59) Ahn, “Economy of ‘invisible debt’ and ethics of ‘radical Hospitality,’ 243.

60) Sweeden, *Church on the Way*, 43.

61) Russell, *Just Hospitality*, 29; Hee An Choi, *A Postcolonial Self: Korean Immigrant Theology and Church*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15), 119.

62) Reynolds, “Beyond Hospitality?,” 115.

63) Pohl, *Making Room*, 121.

64) 힘의 차이가 확연한 현실에서 주인의 위치를 점한 사람들과 손님의 위치에 놓인 사람들의 경험을 같다고 말할 수는 없다. 심지어, 차별, 학대, 억압, 폭력 등의 경험 역시도

공통의 경험은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공동의 책임을 부여한다. 러셀은 이를 동등한 주체로 거듭나는 과정으로 설명한다. 이 과정에서 관계의 개방성이 생겨난다.⁶⁵⁾ 또한, 아메드는 손님과 주인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을 때 관계의 개방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아메드는 환대를 통한 손님과 주인 간의 만남을 “기이한 만남(strange encounter)”이라고 명명한다.⁶⁶⁾ 이 만남에서 손님과 주인 간의 거리는 절대로 좁혀지지 않는다. 이 간격 때문에 들은 서로를 완벽히 인식할 수도 없고 자신의 규범이나 원칙을 상대방에게 강요할 수도 없다. 아메드에게 이 간격이 환대를 정의롭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왜냐하면 이 공간 안에서 모두의 정체성(identity)와 존엄성(dignity)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엘리아자르 페르난데스(Eleazar Fernandez) 역시 관계의 개방성을 강조한다. 그에게도 이와 같은 개방성은 주인과 손님 모두를 자유롭게 하는 공간 liberating space)을 통해 보장된다. 이 공간은 “다른 사람이 숨을 쉬고,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공간”이기도 하다.⁶⁷⁾ 이곳에 속한 모두는 이분법적 논리에 의해 희생당하지 않고 각자의 모습으로 살아 숨쉰다.

관계의 개방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필수 조건이 뒤따른다. 첫 번째는 주인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사회 기득권층, 즉 시민들의 책임 의식이다. 이들의 책임을 타인에 대한 책임과 사회에 대한 책임으로 나눌

일반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러셀의 주장은 비판의 여지가 있다.

65) Russell, *Just Hospitality*, 26-29. 물론 혐오, 차별, 배제, 억압, 폭력 등의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주인과 손님의 위치에 각각 놓인 사람들을 공통의 경험으로 환대 묶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크다. 그러나, 사회 구성원 모두가 환대를 통해 정의를 실현시키고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는 러셀의 희망은 수용 가능하다.

66) Ahmed, *Strange Encounters*, 156.

67) Eleazar S. Fernandez, *Burning Center, Porous Borders: The Church in a Globalized World* (Eugene, OR: Wipf and Stock Publishers, 2011), 228.

수 있다. 먼저, 시민들이 타인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할 때 환대는 도덕적 투명성과 사회적 우월함을 내세운 지배와 통제 수단인 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경계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피지배자, 채무자, 또는 수혜자로 축소 또는 환원시키지 않으려는 노력, 즉 인식의 평등을 추구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곧 타인을 보편적 가치와 존엄을 가진 존재로 보고자 하는 노력과 동일하다. 이와 같은 인식을 통해 이민자, 이주노동자, 난민과 같은 이방인들을 공동의 작업자(co-worker) 또는 공동의 창조자(co-creator)로 볼 수 있게 된다.

또한, 시민들은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 이들의 책임 의식은 타인에 대한 혐오, 차별, 배제, 억압, 폭력을 자행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반성으로부터 형성된다. 즉, 자신의 의도와 관계 없이 자기 스스로가 이방인을 둘러싼 사회 문제 발생에 일조했다는 사실과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불평등한 사회 구조 형성에 공헌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인정과 반성을 통해 시민들은 자기 스스로에게 새로운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 이 때의 역할은 지배와 통제가 아닌 공감, 연민, 연대가 되어야 한다.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시민들에게는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이를 바로 잡으려 하는 책임의 윤리(ethics of responsibility)가 요구된다.

또 다른 필수 조건은 손님의 위치에 놓였던 사람들의 도덕적 주체성(moral agency)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모든 인간은 도덕적 존재(moral being)이다. 모두가 도덕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뜻이다. 모든 사람이 도덕적 행위자(moral agent)라는 인식에 근거해 손님의 위치에 놓일 수 밖에 없었던 이방인들을 새로운 환대의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도덕적 주체로 볼 때 오늘날 정의로운 환대의 상상은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우리는 흑인 여성신학자 케이티 캐논(Katie G. Cannon)의 도

덕적 주체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 캐논의 도덕적 주체 개념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인간만을 주체로 여기던 서구 남성 중심의 도덕적 주체 이해, 즉 “자유와 다양한 선택(freedom and a wide range of choices)”을 가진 사람만을 도덕적 주체로 삼는 이해 방식과 거리가 멀다. 오히려, 혐오, 차별, 배제, 억압, 폭력의 상황에 놓여 제한된 자유와 좁은 선택의 폭을 가진 사람도 도덕적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⁶⁸⁾ 이같은 도덕적 주체는 자신의 힘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게 된다. 저항, 용서, 연대가 바로 그 예가 될 수 있다.

캐논의 도덕적 주체 개념을 중심으로 새로운 환대를 상상하고자 한 시도의 예로 크리스틴 헤이어(Kristin E. Heyer)와 린 웨스트필드(N. Lynne Westfield)의 환대 모델을 들 수 있다. 먼저, 헤이어의 환대는 이민자들이 곧 환대의 새로운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전제된다. 헤이어에 의하면, 이민자들은 “저항의 주체(resistant agent)”로서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이민 현실을 만든 구조적 힘에 도전한다.⁶⁹⁾ 또한, 동일한 현실 속에서 고통 당하는 피해자들과 함께 애통(lamentation)하고 연대(solidarity)하고자 한다. 즉, 이민자들의 환대는 저항, 애통, 그리고 연대로 새롭게 상상된다. 또한, 웨스트필드는 다중적인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회복탄력적 주체(resilient agent)”로 규정한다.⁷⁰⁾ 이들은 생존 이외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존재로서 고통 당하는 자기 이외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기 위해 환대를 실천한다. 웨스트필드는 이들의 환대를 “타자가 타자에게 행하는 환대(stranger-to-stranger hospitality)”라고 정의한다.⁷¹⁾

68) Katie G. Cannon, *Black Womanist Ethics* (Eugene, OR: Wipf & Stock Publishers, 1988), 3.

69) Kristin E. Heyer, *Kinship Across Borders: A Christian Ethic of Immigration*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2012), 144-145.

70) N. Lynne Westfield, *Dear Sisters: A Womanist Practice of Hospitality* (Cleveland: The Pilgrim Press, 2001), 17.

손님의 위치에 놓인 사람들에게 책임을 논하는 것은 무리일까? 이들에게도 책임을 말할 수 있다. 이방인들의 도덕적 주체성은 시민들과는 다른 종류의 책임을 갖게 한다. 우선, 이들은 저항의 책임이 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폭로하고 반성과 변화를 요구해야 한다. 이들의 예언자적 목소리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을 일깨우고 우리 사회 전체에 공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이방인들에게 연대의 책임이 요청된다. 이들의 연대는 우리 사회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타자 중의 타자를 찾아내어 위로하고 치유하는 일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연대를 위한 이들의 노력이 사회 전반의 인식을 바꾸고 새로운 정책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V. 나가는 말: 다양한 상상을 통한 공생의 길 모색

“환대는 위기에 처해 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환대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환대가 재규정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⁷²⁾ 미릴 로셀로(Mireille Rosello)는 오늘날의 이민자 문제는 환대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지속된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수많은 환대 연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환대의 모델이 없다는 사실이 위기임을 알려준다. 사실 이같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하다. 한 가지의 환대 모델을 통해서만 복잡한 우리 사회에서 탄생하는 수많은 타자들을 모두 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양한 상상을 통해 타자를 위로하고 치유하며 함께 살아갈 길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71) 위의 책, 9.

72) Mireille Rosello, *Postcolonial Hospitality: The Immigrant as Guest* (Palo Alto,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1), 8.

우리 사회에서 환대는 공감(empathy), 연민(compassion), 저항(resistance), 용서(forgiveness), 화해(reconciliation), 연대(solidarity), 상호 의존(interdependence) 등의 다양한 모습으로 상상될 수 있다. 모두 기존의 환대 전통을 비판적으로 이해하여 새롭게 상상한 환대의 윤리(ethics of hospitality)의 결과물들이다.⁷³⁾ 데리다도 인정한 것처럼, 사실 진정한 환대는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의로운 환대를 상상해야 하는 이유는 환대의 윤리를 추구함으로써 지금 우리의 현실을 조금 더 바꾸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대는 여전히 위험한 행위이다. 환대 때문에 우리는 값비싼 대가를 치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환대를 실천해야 한다. 캐나다 여류 작가 나오미 클라인(Naomi Klein)이 위기는 우리에게 무엇이 가능한지 깨닫게 한다고 말했다가 우리 사회 안에 끊임 없이 발생하는 차별, 배제, 폭력의 문제는 우리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준다.⁷⁴⁾

73) Hanbyul Park, "Redefining Hospitality in the Context of COVID-19 Pandemic: Social Connection and Solidarity," *Journal of Asian American Theological Forum* 7/1(2020): 27-33.

74) Naomi Klein, *The Shock Doctrine: The Rise of Disaster Capitalism*, 2nd edition (Toronto: Vintage Canada, 2008), 6.

참고문헌

- 김성호. “상호문화주의를 바탕으로 한 기독교 다문화사회복지의 과제: 평등을 지향하는 공정한 환대의 실천.” 『기독교사회윤리』 36(2016), 37-75.
- 이상철, 김남석. “난민 시대 환대의 기독교 윤리.” 『신학사상』 189(2020), 279-306.
- 조용훈. “다문화 사회에서 기독교의 윤리적 과제.” 『기독교사회윤리』 22(2011), 303-330.
- 최진우. “환대의 윤리와 평화.” 최진우 편저. 『다양성의 시대, 환대를 말하다』. 서울: 박영사, 2018.
- 한건수. “한국사회의 다문화주의 혐오증과 실패론: 어떤 다문화주의인가?” 『다문화와 인간』 1/1(2012), 113-143.
- Ahmed, Sara. *Strange Encounters: Embodied Others in Post-Coloniality*. New York: Routledge, 2000.
- _____. *On Being Included: Racism and Diversity in Institutional Life*.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2012.
- Agamben, Giorgio. *Homo Sacer: Sovereign Power and Bare Life*, 1st edition.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8.
- Ahn, Ilsup. “Economy of ‘invisible debt’ and ethics of ‘radical Hospitality’: Toward a paradigm change of hospitality from ‘gift’ to ‘forgiveness’.” *Journal of Religious Ethics* 38/2(2010), 243-267.
- Bretherton, Luke. “Tolerance, Education, and Hospitality: A Theological Proposal.” *Studies in Christian Ethics* 17/1(2004), 80-103.
- Bolchazy, Ladislaus J. *Hospitality in Early Rome: Livy’s Concept of Its Humanizing Force*. Chicago, IL: Ares Publishers, 1977.
- Cannon, Katie G. *Black Womanist Ethics*. Eugene, OR: Wipf & Stock Publishers, 1988.
- Castles, Stephen and Mark J. Miller.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2nd edition. London:

- MacMillan Press, 1998.
- Choi, Hee An. *A Postcolonial Self: Korean Immigrant Theology and Church*.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15.
- Chrysostom, John. "Homily XXIV on Hebrews xi, 13-16." In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of the Christian Church* 1-XIV. Translated by G. T. Stupart, 473-477. New York: The Christian Literature Company, 1890.
- Derrida, Jacques. *Adieu to Emmanuel Levinas*. Translated by Pascale-Anne Brault and Michael Naas.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9.
- _____. *On Cosmopolitanism and Forgiveness*. Translated by Mark Dooley and Michael Hughes. New York: Routledge, 2001.
- _____. "Hospitality." In *Acts of Religion*. Edited by Gil Anidjar. 358-420. New York: Routledge, 2002.
- Fernandez, Eleazar S. *Burning Center, Porous Borders: The Church in a Globalized World*. Eugene, OR: Wipf and Stock Publishers, 2011.
- Gittens, Anthony. "Beyond Hospitality? The Missionary Status and Role Revisited." *International Review of Missions* 83/330(1994), 397-416.
- Hamington, Maurice. "Toward a Theory of Feminist Hospitality." *Feminist Formations* 22/1(2010), 21-38.
- Heyer, Kristin E. *Kinship Across Borders: A Christian Ethic of Immigration*.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2012.
- Hinze, Christine Firer. "Power in Christian Ethics: Resources and Frontiers for Scholarly Exploration." *The Annual of the Society of Christian Ethics* 12(1992), 277-290.
- Hollenbach, David. *Common Good and Christian Eth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 Isasi-Diaz, Ada Maria. "John Rawls on Justice." In *Beyond the Pale: Reading Ethics from the Margins*. Edited by Stacey M. Floyd-Thomas and Miguel A. De La Torre. 145-152.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1.
- Isayev, Elena. "Hospitality: A Timeless Measure of Who We Are?" *Migration and Society: Advances in Research* 1(2018), 7-21.
- Jipp, Joshua W. *Saved by Faith and Hospitality*. Grand Rapids, MI: William B.

-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17.
- Kang, Namsoon. *Cosmopolitan Theology: Reconstituting Planetary Hospitality, Neighbor-Love, and Solidarity in an Uneven World*. St. Louis, MO: Chalice Press, 2013.
- Klein, Naomi. *The Shock Doctrine: The Rise of Disaster Capitalism*, 2nd edition, Toronto: Vintage Canada, 2008.
- Kim-Cragg, HyeRan. "A Postcolonial Portrait of Migrants as Vulnerable and Resistant." *Practical Matters* 11(2018), 1-14.
- Kwok Pui-lan. *Postcolonial Imagination and Feminist Theology*.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5.
- Lorde, Audre. *Sister Outsider: Essay and Speeches*. Trumansburg, NY: Crossing Press, 1984.
- Lucien, Richard. *Living the Hospitality of God*. New York: Paulist, 2000.
- Newman, Elizabeth. *Untamed Hospitality: Welcoming God and Other Strangers*. Grand Rapids, MI: Brazos Press, 2007.
- Nietzsche, Friedrich. *On the Genealogy of Morals, trans., Walter Kaufmann and R. J. Hollingdale*. New York: Vintage Books, 1989.
- Nothwehr, Dawn M. *Mutuality: A Formal Norm for Christian Social Ethics*. Eugene, OR: Wipf and Stock Publishers, 1998.
- Nouwen, Henri J. M. *Reaching Out: The Three Movements of the Spiritual Life*. New York: Doubleday, 1975.
- Oden, Amy G. *God's Welcome: Hospitality for a Gospel-Hungry World*. Cleveland, OH: The Pilgrim Press, 2008.
- _____. *And You Welcomed Me: A Sourcebook on Hospitality in Early Christianity*. Nashville, TN: Abingdon Press, 2001.
- Palmer, Parker J. A. *Company of Strangers: Christians and the Renewal of America's Public Life*. New York: Crossroad, 1986.
- Park, Hanbyul. "Redefining Hospitality in the Context of COVID-19 Pandemic: Social Connection and Solidarity." *Journal of Asian American Theological Forum* 7/1(2020), 27-33.
- Pohl, Christine D. *Making Room: Recovering Hospitality as a Christian Tradition*.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9.

_____. "Hospitality from the Edge: The Significance of Marginality in the Practice of Welcome." *The Annual of the Society of Christian Ethics* 15(1995), 121-136.

Rawls, John. *Justice as Fairness: A Restatement*. Edited by Erin Kelly. Cambridge, MA: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01.

Reynolds, Thomas E. "Beyond Hospitality?" In *Religion and Migration: Negotiating Hospitality, Agency, and Vulnerability*. Edited by Andrea Bieler, Isolde Karle, HyeRan Kim-Cragg, and Iлона Nord. 109-123.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2019.

Rosello, Mireille. *Postcolonial Hospitality: The Immigrants as Guest*. Palo Alto,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1.

Russell, Letty M. *Just Hospitality: God's Welcome in a World of Difference*. Edited by J. Shannon Clarkson and Kate M. Ott.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9.

_____. *Church in the Round: Feminist Interpretation of the Church*.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3.

Sweeden, Nell Becker. *Church on the Way: Hospitality and Migration*. Eugene, OR: Pickwick Publications, 2015.

Webb, Stephen H. *The Gifting God: A Trinitarian Ethics of Exces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Westfield, N. Lynne. *Dear Sisters: A Womanist Practice of Hospitality*. Cleveland: The Pilgrim Press, 2001.

논문투고일: 2023년 10월 30일

심사개시일: 2023년 11월 16일

게재확정일: 2023년 12월 12일

• 국 문 초 록 •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환대를 새롭게 상상하는데 있다. 새로운 것을 상상해야 하는 이유는 전통적인 환대의 모델이 가진 한계점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아무런 보상과 보답에 대한 기대 없이 낯선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도덕적 행위로서의 환대를 오늘날 그대로 모방할 수 없는 이유는 자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환대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 본 연구는 환대가 본질적으로 가진 특성인 관계의 개방성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이를 통해 환대의 참여자들 모두가 수혜자 또는 수여자가 아닌 협력자로서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야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할 수 있는 정의로운 환대의 개념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제어: 환대, 힘의 차이, 모방, 상상, 정의
